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8호 [주체 제23230호] 주체99(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65주년을 축하하며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경제 및 무역참사단 단장인 왕치영 주조경제무역참사관 경제무역참사가 4일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이 특집하고 기념보도를 하였다.

캄보디아신문 《크마에 아마타》 9월 29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시고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 경축(1945. 10. 10-2010. 10. 10)》이라는 표제 밑에 웅근 두문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인 김일성주석의 평생의 념원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65성상은 인민을 이끌어 세기적변혁을 창조해온 승리와 영광의 역사이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방글라데시신문 《뉴스 투데이》 9월 27일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라는 표제 밑에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어머니당과 김정일》 등 제목의 글들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미래에로 향도하는 당으로 되도록 이끌어주고계신다고 하면서 그이를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이며 무한하다고 강조하였다.

9월 24일 기내국내방송과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이것은 김정일각하의 명언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인민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세우고있다. 당의 창건자인 김일성주석께서는 선군정치 역시 나라의 현실적 요구와 자주적인간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치이다.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업의 첫 자리에 놓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을 가리켜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본사기자

《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작품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선집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62(1973)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력사적인 연설과 결론, 담화 등 12건의 고전적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에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탁월한 사상리론과 방침들이 집대성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작 《영화예술론》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문화의 분성과 근본문제를 독창적으로 밝히시고 세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문화예술을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이며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화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정신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화이다.》

머리말과 《생활과 문화》, 《영화와 연설》, 《성격과 태우》, 《영상과 촬영》, 《화면과 미술》, 《장면과 음악》, 《예술과 창작》, 《창작과 지도》의 체계로 구성되어있는 고전적작품에는 주체적이며 현실적인 영화예술과 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원칙,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종자를 바로 키우고 배우를 잘 가꾸는 문제, 연출가와 배우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촬영에서 나서는 요구들과 영화미술을 우리 식으로 창조발전시키고 영화와 인민들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만들어 내는 문제 등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독창적으로 밝혀 주시었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들도 로작에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 《장편소설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훌륭히

형상한 명작이다. 《혁명가극단 설립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혁명가극단 (금강산의 노래)》를 훌륭하게 완성할데 대하여》에서 문학작품창작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혁명가극단창조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발전시켜 가극예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시었다.

로작에는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당의 문예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예술적기량을 한계안 높이며 장편소설 《만경대》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을 교양할데 대한 문제들이 밝혀져있다.

또한 사회주의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창작에서 감동설정과 논평한 문제, 가극에서 나오는 노래를 생활적으로 잘 맞물려주며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배우들이 연기형상을 자연스럽게 할데 대한 문제들이 로작들에 제시되어 있다.

《선전선동부의 기본업무에 대하여》, 《선전선동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은 우리 당사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선전선동부의 기본업무와 당선전선동부의 사업방법을 가르쳐주시고 그들이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일제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로작들에는 또한 선전선동부 일군들이 당사상사업을 주선으로

들어키고나가는것과 함께 혁명적이면서 인민적인 사업작품을 가질데 대한 사상이 명시되어있다.

고전적로작 《전반적 1년제의 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 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자》에는 교육사업의 중요성과 전반적 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서와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키우는 직접적 담당자인 교원들을 잘 준비시키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구체적인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체육경기에서 기술준을 벌리며 경기전술을 잘 세우고 체육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체육과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키 나가기 위한 방도들이 로작 《체육경기에서 기술준을 벌리며 체육과학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에 반영되어있다.

선집에는 이밖에도 항일유격대식 학습방법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깊이 인식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의 자각적역성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혁명적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관한 해답을 주는 고전적로작들이 편집되어있다.

《김정일선집》 제5권 (증보판)에 수록되어있는 로작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우리 당의 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적대진군을 다그치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민족의 영광과 긍지안고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향도의 당을 받들어 주체혁명위업 끝까지 완성하리

지난 40년간 수백만명의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당창건사적관을 참관

해방산기슭에 자리잡은 당창건사적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고 혁명적위업의 혁명사적기둥들이었는 력사의 집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게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일찌기 당창건사적관을 잘 꾸리도록 하시면서 주체59(1970)년 10월 몸소 사적관을 찾으시어 진행전시된 혁명사적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참관교양사업을 잘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여주시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40년간 수백만명의 우리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자기의 믿음직한 전위부대, 전로적참모부를 가지고 자기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창건으로 자주시대 혁명

적당의 새 력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뜻깊은 당창건 6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이즈음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이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고있다.

2층으로 된 당창건사적관에는 새 조국건설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사업하시던 집무실들과 응접실, 회의실이 원상 그대로 꾸려져있으며 수령님의 당창건업적을 보여주는 혁명사적자료들이 전시된 여러개의 진열실들이 있다.

사적관의 집무실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건당, 건군, 건국사업과 제반 민주개혁실현을 위한 사업 등 새 조국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끄시던 나날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혁명사적물들과 수령님께서 수많은 각계층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데 대한 당시의 력사적사실들을 전해주는 혁명사적물들이 소중히 보존되어있다.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시던 응접실을 비롯하여 수십년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도 어머니수령님의 제위가 고집해 세배여있는 혁명사적물들 앞에서 위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면서 그이께서 해방직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는가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회의의 지도하신 회의실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20돐 경축대회에서 하신 수령님의 보고를 육성으로 들으면서 대중적정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과 통일,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감동깊이 되새기고있다.

특히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정권수립과 무력건설, 민족간부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였으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과 공산당을 강화력한 대중적정당인 로동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는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절감하고 있다.

참관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간고한 항일의 불바다를 헤치시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쌓이고쌓인 피로를 후일 사이도 없이 항일의 혁명투쟁시기에 무르익힌 원대한 구상과 준비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고강도를 다 바치신 어머니수령님의 위대한 업적, 고매한 품모에 대하여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어머니수령님께서 펼쳐가고있는 김일성민족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이다.

혁명적당, 필승불패의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적업적을 심장깊이 새기고 있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우리 당창건의 력사가 집대성되어있는 이곳을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당창건업적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명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로동당은 세상이 가장 권위있고 존엄높은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어가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향도의 당을 받들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는 김일성민족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이다.

본사기자 황병희

당을 따라 천만리

◇ 지금 온 나라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크나큰 환희와 격정으로 용양처럼 끓어번지고 있다. 오늘의 대경사를 축하하는 인민군중행렬의 경축대회를 이어 조국방 방방곡곡에서 경축대회와 축하행사가 진행되고있다.

경축대회장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당을 따라 천만리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가 되성마냥 터져나오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걸어오면서 수백봉, 장군님을 누리는 긍지와 행운을 심장으로 절강한 군대와 인민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국방에는 해마다 선군승리 열두달이 어김없이 찾아왔고 인민의 리상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희한한 현실이 펼쳐져서 되었다. 하기에 지금 천만리군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커다란 자부심으로 해돋는 바다처럼 끝없이 설레이는 것이다.

◇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의 웨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정치적향도자로 인정하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위탁하고있으며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 당은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은 세계를 지퍼올렸다. 우리 당의 결심은 언제나 빛나는 현실을 안아온다. 천만리군이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떨쳐나설 때 불멸의 기적도 창조할 수 있다. 대개도의 영웅사서사와 원혼평의 사파꽃바다가 이것을 보여주었다.

지금 당대포화포식에 집한 최첨단전선건설의 인민군용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리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릴 일념으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한 몸이 그대로 만년언제가 되어서라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제때에 철저히 관철하려는것이 최첨전에 굽이치는 결사의 투쟁정신이다. 이런 불굴의 정신력은 온 나라에 세차게 나래치기에 우리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것이다.

◇ 당을 따르는 천만리는 승리의 천만리, 영광의 천만리이다. 영국공산당 (람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받든 조선로동당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혁명가들과 인민들의 행운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찬송을 받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예이고 긍지이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백전백승의 당, 전도양양한 당이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승리의 천만리, 행복의 천만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이 철석의 신념을 안고 당의 두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므로써 위대한 우리 당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게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강명천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 대동강 라일 공장에서 —

본사기자 강명천

2 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 활발

대고조의 불길도 경제전선에서부터 더욱 세차게 타올라야 합니다.》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가 완공되면 운반능력이 더욱 높아져 탄광의 석탄생산량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김일성민족의 영광과 긍지안고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신심들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과 돌격대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

탄광에서는 높이 세운 석탄 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석탄배출량이 풍부한 새 구역개발에서 찾았다. 탄광에서는 2단계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새 구역에서의 생산준비를 갖추는데서 앞서워야 할 공경으로 내세웠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벨트콘베아수송선을 들여앉히기 위한 정도굴전에 전투력있는 고속도굴진소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탄광에서는 하루빨리 공사를 앞당기려는 굴진공들의 앙양된 열의가 높은 진척속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굴진소대들이사의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

하였다. 일군들의 빈틈없는 조직사업과 혁명적일본세에 의하여 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어갔다. 려정고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개소를 차지하고 드레한 공작을 들어대면서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풍개 전진하였다. 이 소대의 굴진공들은 설비판리에 힘을 넣어 압축기, 버퍼, 직제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임으로써 려일 높은 굴진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최순일고속도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각인한 압력에 따르는 합리적인 발파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였다. 소대의 작업인원들이 더욱더 높은 진척속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굴진소대들이사의 사회주의경쟁을 의의있게 조직하고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책임적으로 보장

공사에 동원된 평안남도안의 직맹원들도 돌격대를 뚫고 석수가 쏟아져내리는 막장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계를 지퍼올리며 연속천공, 연속발파의 동을 올리고있다. 지난 9월 중순, 공사에 동원된 굴진공들은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의 정도굴진을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탄광에서 가까운 시일안으로 벨트콘베아수송선공사를 끝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탄광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다.

자랑찬 로력적성들을 안고 10월의 경축대회를 멋있게 열어 올리는 결의에 넘쳐있는 최선청년탄광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날로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정론

《백만점》리상촌이 펼쳐 졌다!

압록강반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펼친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을 노래하여

은 나라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설레어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범함없이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와 영광을 안고 천만근민은 보다 큰 승리와 비약의 열마루에로 신심드높이 나아간다.
적동하는 이 시대의 박동을 더해주고 충진하는데도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는 훌륭한 본보기가 빛을 뿌리고 있다.

얼마전 조국의 북단에서 3월5일 청년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지개벽의 희한한 모습을 펼친 광산의 전경을 기쁨에 넘쳐 굽어보시면서 이 광산은 선군시대에 태어난 인민의 무릉도원이고 리상촌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사변중의 특수사변인 인민의 리상촌의 탄생!
여기에 리상실현의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선 오늘의 장엄한 시대상과 바야흐로 조선이 울라라게 될 승리와 변영의 눈부신 열마루가 비껴갔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일떠세우는 강성대국 이 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위화찬란한가를,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향도가 어떤 위대한 기적을 안아오노를 알라거든 여가 현대화의 모범광산에 와보시라.

1 《백만점》!
전체를 찾아볼수 없는 값높은 평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그날 3월5일청년광산을 돌아보시면서 이 광산은 만점이 아니라 《백만점》이요, 《백만점》이라고 대대찬사를 표시하시었다.

얼마나 훌륭하고 완벽했기였으면, 얼마나 경이적이었기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 아직 사건에도 올라본적이 없는 이런 희한한 언어에 담야 최상의 평가를 주시였는가.

만점도 최고인데 거기에 백배를 더했다고 생각해보시라.
이 광산의 현대화의 높이가 여기에 있고 이곳 사람들의 행복과 문명의 심도가 여기에 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볼수 있다.
세계에서 들지않는 조선의 본래를 반영한 비약적인 발전과 최첨단들과에서도 생산의 높은 장성과 그 확고한 담보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정신력과 생산자들의 천지개벽에 있어서도 이 광산은 모든 면에서 백만점이다.

분명 광산이 아닌 현실이다.
보는것마다 새롭게 모든것이 흠잡을데 없이 완전무결하여 바로 이것이야말로 리상촌의 세 경지, 선경의 절경이라는 아름다움과 격찬이 절로 터져나온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 혁명대학교의 진군속에서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품고있었던 리상과 포부가 하나하나 현실로 꽃피고 있습니다.》

광산마을입구에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는 큼직한 구호가 문주마당 거연히 서있는데 산골마을을 돌아내리니 희한하고 황홀한 광산마을의 모습이 전설속의 무릉도원마냥 눈앞에 펼쳐진다.

설비의 대형화가 은을 내는 로천체굴장도 만점이고 연속 들이달린 중량차에서 짐재량이 광석들이 쏟아지니 바쁘고 붐비게 푸르쳐져서 대형화재장, 부스레기 전 광석들이들고 싣고 쉬임없이 흐르고 흐르는 벨트콘베어도 튼튼없는 만점이다.

요란한 원주과제기들도, 새로 설치한 마광기, 선별기들도 먼저 한껏 날리지는 않았고 제진장치가 되어있어 더없는 선광장에는 신선한 공기가 차넘친다.

광석체굴로부터 운반, 마광, 부선 등 모든 생산공정의 CNC화가 실현되어 로동자들이 유례로동에서 완전히 벗어나 기계감시나 하반역 일을 할하고 총집게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처럼 그러하고 소원하던 리상적인 로동이 아니란말인가.
보는것마다 제일, 제일 또 제일이다.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쁘셨으면 사회주의선경, 사회주의리상촌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는 그런 말로써도 다 표현할수 없는 선경중의 선경이라고, 정말 희한한 곳이라고 덧붙이고 의우고 또 의우셨으랴.
광산을 일하기 좋고 현대화된 일터로, 광산마을을 꿈이나 리상으로 그려보던 희한한 착상으로 전변시킨것은 명백히 세상이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최고의 본보기이다.
침침지를 2중으로 건설하여 물고기가 떴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과인가.

강에서 파올러 선광장에서 쓰고난 물을 다시 강으로 펴내어 자체발전소에서 전기를 일으키니 실리직축에서 보아도 참으로 리상적인 광산이다.

모든 면에서 여기는 강성대국리상촌으로서의 제보를 완전히 갖추었다.
누구나 골고루 풍성한 생활을 향유하는 것 또한 이곳 광산마을사람들의 자랑중의 자랑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쁨에 넘쳐 불려 주신것처럼 광산은 진짜 부자광산이다.
땅속에는 억대의 보물이 딱 치었고 땅 위에서선 직업의 귀천을 모르는 사람들이 현대화된 일터에서 성수가 나서 일하고 세상 부러울것없이 잘 사니 이곳이야말로 선군 11경에 이어 태어난 또 하나의 선경이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결출한 령도자만이, 인민의 진정한 어머니만이 사변의 심원한 본질과 거대한 생활력을 명철하게 꿰뚫어볼수 있고 가장 정확히 표현할수 있다.

백만점, 이는 단순히 전변의 크기나 행복의 높이만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다.
사랑하는 인민에게 하루빨리 세상이 부러워할 천만가지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열화같은 리상의 높이가 여기에 비껴있고 한생의 모든 보람과 희열도 오직 인민의 기쁨에서 찾았다는 그의 무한대한 혁명열, 애국열이 여기에 불길 치고있다.

2 광산에 펼쳐진 선경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께서 불라는 리상을 안고서도 감당없는 강행군으로 심혈을 바쳐 완성해주시는 강성대국대전경화의 뜻깊은 화폭이다.
1동2세대살림집의 한지붕아래 누구나 화목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대가족, 집집마다 수십가지의 각종 과일나무에 물려 온 동네가 과일동토로 불리우고 주변산에 우거진 무성한 숲에서는 온갖 새 우짖으니 인류의 리상촌을 예뻐하고 어찌가 또 찾겠는가.

광산은 분명 강성대국의 대문안에 들어섰다.
미래에 대한 판관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남먼저 고난을 박하고 락원의 행군길에 나섰던 자강도의 선구자들이 드디어 세계가 우러러보게 될 인민의 리상촌, 강성대국의 본보기를 선창으로 일떠세운것은 조선의 리상을 곧 실현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역사가 새기는 장엄한 사변이 아닐수 없다.

광산이 리상으로, 리상이 현실로 되는 국적인 화폭이 어떤진가를 알리면 여기에 와보시라.
낮에 보는 풍경도 환희롭지만 밤에 보는 풍경 또한 불수루 장관이다. 불장식으로 화려하고 기쁨의 웃음소리 그칠새없는 영양제식당과 정양소, 문화회관이며 집집의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행복의 불빛들로 하여 밤을 모르는 이곳이야말로 자본가들도 침을 흘리며 부러워할 영원한 변화가, 강성대국조선의 변화기이다.

오죽하면 국경너머 판관지에 이 광산의 소개념까지 세워놓고 사전을 찍는것이 외국인들의 하나의 멋으로 되었겠는가.
광산에 최상의 평가를 내리시기에 앞서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굽어있을 심원한 사색과 격정의 세계가 심장을 파고든다.

지닌에는 결격의 락원바탕에서 리상 사회의 맹아를 보시고 그처럼 흥분을 금치 못하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당장전 65공을 앞둔 격동적인 시기에 여기에 오시어 승리의 기발을 꽃짓는 혁명의 땅,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고 소리치는 자랑이 되는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과 필치시며 우리 장군님이 어느곳보다 먼저 쓰시어 승리의 기발을 꽃짓는 혁명의 땅,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고 소리치는 자랑이 되는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과 필치시며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의 결정을 곧 리상과 현실이 일치되는 내 조국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아마 이 광산이 어떻게 되어

확고히 실현한 나라는 일찌기 없었다.
한편 내세운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만시련을 완강히 뚫고 헤쳐 끝끝내 그 본보기를 창조한것이 다름아닌 내 나라, 위대한 김정일조선이라는것은 얼마나 멋진 자부이고 가슴벅찬 환희이며 세계가 우러러보게 될 선군의 승리인가.

수도의 중심부가 아니라 조국땅 한끝, 힘하고 고된 일터의 상징과도 같았던 광산자리에 펼쳐진 이 리상촌이 시대에 주는 의미는 참으로 크다.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은 우리의 자헌,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이루어 놓은 새로운 발전적인것, 세계적인것들이 끝없이 창조되는 선군조선의 변영의 측두이시고 강성대국승리의 날을 예고해주는 자랑찬 화폭이다.

리상사회화한 결코 신비한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자주적존엄을 지니고 현대적인 일터에서 물질적부족을 끊임없이 늘리며 문명한 생활을 창조하고 누구나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골고루 소리치며 잘 사는 바로 이런 리상촌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던 리상사회가 아니겠는가.

압록강 푸른 물이 삼천리강산의 첫 기슭을 적시며 이 나라 대지우로 굽어쳐가듯이 조국의 북변에서 창조된 이 기적은 시시각각 온 나라에 파급되어갈것이니 머지 않아 이 땅우에 펼쳐질 강성대국리상촌의 전모를 세계는 흥분과 부러움에 넘쳐 우러러보게 될것이다.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속속히 일떠서는 리상촌, 희한한 선경들이여 우리 인민은 로동당만 믿고 가면 반드시 천만가지 행복이 꽃피고 그토록 범원해은 강성대국승리의 그날도 오고야만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더 굳게 가다듬고있으며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에 감사의 존경을 드리고있다.

3 내 조국은 어떻게 변영하는가.
인류의 리상촌, 인민의 무릉도원은 어떻게 꽃피는 것인가.
푸른 숲 우거진 수려한 봉우리를 마주서면 집적같은 후조가 가슴벅차게 안겨온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만세!》

행복의 전미가 차넘치는 여가 조국명 한끝의 백만점처럼 광산에서 문과와도 같은 이 구호의 꽃들이 다시, 또다시 새겨보는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커다란 충격을 휩싸이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3월5일청년광산에서 오래동안 일해온다는 한 광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누구나 우리 광산의 천지개벽을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는 사실이지만 모든 면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심하시고 하나하나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꽃피우시면서 열매맺게 해주신것입니다.》

강성대국리상실현의 봉화를 든 행복한 주인공들, 시대의 자랑스러운 선구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터치는 이 땅에서 우리는 참으로 귀중한 진리를 가슴에 새겨안게 된다.
조선은 결실하면 한다!
우리 장군님께서 결심하시면 모든 일이 잘된다!

고난의 동토대를 부시고 비약과 상승의 한길로 끊임없이 출발해온 3월5일청년광산의 연혁사는 혁명의 이 진리를 여실히 증명해주고있다.

지금에 와서 보면 3월5일청년광산은 굴지의 정방형산기대, 세상에 둘도 없는 리상촌으로서만 그 이름이 유명하지 않다.
강제정수선상 10리과 더불어 《되돌아가신 수천리길》이라는 가슴뜨거운 혁명열화가 태어난 곳.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눈앞에 둔 격동적인 시기에 변이 터지고 리상이 실현되는 조국의 자랑한 전변상을 누리에 펼치시며 우리 장군님이 어느곳보다 먼저 쓰시어 승리의 기발을 꽃짓는 혁명의 땅,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고 소리치는 자랑이 되는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과 필치시며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의 결정을 곧 리상과 현실이 일치되는 내 조국의 상징이다.

사람들은 아마 이 광산이 어떻게 되어

조국의 북단 외진 두메에 솟아났는지 다는 모를것이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조국땅 그 어디라 없이 헌신의 자욱을 새겨 오신 어머니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십년 전 이곳에 오시어 지맥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문득 일꾼들에게 우리가 서있는 이터를 한편 파보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무순 광물이 나올것이라고 신중히도 예언하시었다.

그후 바로 그 지점에서 부강조국의 청년미래를 담보하는 억대의 보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누구나 보다 기뻐하신 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로천제굴이 가능하고 수송문제도 해결할수 있으면 그곳에 반드시 광산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광산개발과 관련한 지질도를 보주시고 100여차례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어 광산이 나아갈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수령님의 그 사랑, 그 은덕을 오늘도 광산사람들은 목메어 외운다.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여 있는 이 광산이 영원히 청춘광산으로, 현대화의 모범광산으로 세세대대 빛을 뿌리게 하여주시는 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이다.

이 땅의 돌 하나, 돌 한포기도 무시할 수 없었고 조국의 제도가 되고 인민의 재산이 되도록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수령님의 선견지명과 불멸의 로고를 승수한 화폭으로 전하는 사연깊은 광산.

그때서 그이께서는 3월5일청년광산을 순간도 잊지 못해하신것이었고 천리 먼곳에 아득히 떨어졌다 해도 찾고 또 찾으신 것이었다. 그 길이 어머니수령님의 리상을 꽃피우려는 길이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에 눈이 와도 가시고 비가 와도 가시며 끝없는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것이다.

어머님의 사랑은 멀리 떨어졌다는 자식일수록 더 뜨겁게 미치는 법이다.
비록 조국의 북변 한끝에 자리잡고있어도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가까이에는 언제나 3월5일청년광산이 있었다.

고난의 그 시기 폐방의 운명에 처했던 광산에 소생의 활력소인 귀중한 밀전도 마련해주시고 광산의 믿음직한 앞길을 담보해주려는 혁명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신 위대한 장군님.

이 광산은 기초가 든든히기때문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고난의 행군》을 다시는 하지 않겠고, 광산이 힘난고 비를 넘겼으니 능력확장만 하면 잘 살수 있다고 결을결을 힘과 용기를 불태우시며 비약의 한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폐방에서 재생애, 재생에서 비약애로! 모두가 이렇게 실현되었다.
어머니수령님께서 한평생 범원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강령하게 그려보시는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은 이렇게 나타났어 꽃피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결심하고 떠난 길, 승리와 변영에 대한 열화같은 희망을 안고 가고가시는 강행군 천만리에서 성취되지 않은 것, 이루지 못한 소원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마치 달리 될수 없는 역사의 필연인듯, 꿈을 꾸면 반드시 성사되는 일인듯이 변이 난 지남해에만 하여도 항방면 위상이 넓고 철갑상어는 바다로 가는 희한한 광명이 펼쳐졌고 자본주의억만장자들도 부러워할 일류공화국이 일떠섰는가 하면 주체예술의 위력을 파시하는 눈부신 화폭들도 선군시대 로동계급의 새 문화장성, 인민경제주체화 실현의 열풍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조국의 북단 두메의 광산에 강성대국의 시범이 창조된 사실을 아시면 그 얼마나 기뻐하시랴.
아마도 우리 장군님께서 당대표자회와 당장전 65공을 앞두고, 그것도 역사적인 중광물공급에 쌓인 피로도 후실사이었어 이곳을 다녀가실때 그이들의 가슴속에서는 어머니수령님께 아뢰이는 이런 리상 실현의 가슴벅차 승리의 보고, 충정의 불길이 새겨져 타올랐으리라.

어머니수령님의 리상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 장군님의 리상은 곧

인민의 행복!
나라와 민족마다 꿈이 있고 민족사와 더불어 품어오는 리상이 있다 해도 이런 고귀한 리상실현의 철학을 간직한 나라와 민족은 없다.

인민의 어머니를 수령으로 모신 사회주의 우리 나라에서만 수령의 리상이 인민의 리상과 일치될수 있고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어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만단을 뚫고나가는 혼연일체의 내 조국에서만 리상이 곧 현실로 되는 극적인 화폭이 펼쳐질수 있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주렁지는 거목에는 보이지 않는 깊고도 언덕 뿌리가 있다.
장군님의 천만고생과 바꾼 행복, 장군님의 천만로고가 뿌리가 되어 맺힌 만복의 열매!

그해서 더더욱 소중한 우리의 리상촌이고 더더욱 소리높이 터치게 되는 사회주의 만세이고 우리 장군님 만만세가 아니겠는가.

3 한생의 뜻도 포부도 리상도 오로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천만가지 행복을 실현하는 길에 두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장거리 바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전해질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따라가이어 이 땅우에 조선식사부기영화의 희한한 세상을 한껏 펼쳐갈 것이다.

4 값높은 투쟁속에 찾은 진리는 고귀하다.
리상을 높이 세우라!
이것이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에서 우리모두가 가슴에 새기게 되는 시대의 힘찬 호소이다.

비약과 전변의 시대인 오늘날 조선의 리상의 높이는 확고히 달라졌다.
우리 나라를 단순히 세계가 부러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니라 우러러 존배하는 나라로 만들려는것이 조선의 더럽없는 신념이고 배양되어 포부이다.

그이같이 오삭하고 평범한 3월5일청년광산 사람들이 오늘날 온 나라가 따라 배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될수 있었던것은 자기 사는 고장, 자기들의 일터를 세상이 보지만이 꾸러놓고 남들보다 더 열등하게 살리도록 잘 살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삼천리 땅에 불고 눈은 세계를 보는 현대화 리상을 지녔기때문이다.

리상이 높은 사람이 천리마를 타고 리상이 뚜렷치 못한 사람이 하늘소를 탄다.
강성대국건설시대의 공민들이여,
그대들이 진정 3월5일청년광산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처럼 조국과 인민의 기억 속에 남는 애국자가 되거든 당과 수령 앞에 언제나 완전무결한 백만점짜리 창조물을 내놓으라! 현대화 포부와 리상을 앞도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사상의 높이, 충실성의 높이에 따라 리상의 높이가 결정된다.
3월5일청년광산은 압록강반에 거연히 솟은 고결한 충정의 기념비이다. 하늘중천에 솟은 구름길과도 같은 산중의 환한 선군도로도 장군님 가시는 걸음걸음이 꽃추단을 펼쳐드러려는 이들의 지극한 충정이 비껴있고 맑은 유리를 끼운 류다른 견망대에도 순간이나마 찬바람을 막아드리려는 절절한 소원이 어리여있다.

광산의 현대화를 단순히 생산생활화를 위한 실무적인 문제로 보기전에 어머니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최상의 영광으로 여기고 일원단결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길로만 곧바로 내달려온 광산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돋보이는 것인가!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이야말로 리상실현의 불길을 끌없이 지켜주는 비약과 전변의 원천이다.
오늘날의 애국자와 영웅이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결한 사상지와 함께 얼마나 현대화 리상을 앞서는가에 따라 강자와 약자, 선구자와 락오자가 갈라진다. 누구나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경회극 《산울림》의 주인공처럼 리상을 높이 세워야

리라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령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요 인종합이다.》

토론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수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위생을 빛나게 해체해 온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강조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고려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안

이러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령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요 인종합이다.》

토론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수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위생을 빛나게 해체해 온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강조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고려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안

이러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령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요 인종합이다.》

토론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수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위생을 빛나게 해체해 온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강조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고려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안

이러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자주적,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령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요 인종합이다.》

멀리 앞을 내다볼수 있고 한결같은 천리를 내달리며 통이 큰 작전을 편속 전개해 나갈수 있다.
만약 이들이 당에서 안겨준 귀중한 밀천을 눈앞의 시련만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둘러였다면 고난은 이겨냈을지 몰라도 오늘의 자랑한 전변은 안아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불과 몇해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천지개벽의 희한한 화폭을 펼쳐놓은 이 광산을 돌아보노라면 여기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지닌 당력과 실천력이 과연 간단치 않구나 하는 충격이 휩싸이게 된다.
리상실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해낼새로 가기는 쉽지 않다.
일단 한번 품은 아름다운 리상의 봉우리에 올라설 때까지 완강한 투지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한다.

리상을 실현한 사람과 리상을 포기한 사람과의 차이가 여기서 하늘땅차이로 갈라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능력있는 일꾼이요, 애국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신 3월5일청년광산 지배인 밀인윤동무야말로 그런 완강한 의지력의 소유자, 더럽없는 실천력을 지녔기 때문이리라.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설비의 대형화, 생산공정의 현대화, 2,000여세대에 달하는 방대한 살림집건설을 한겨번에 통이 크게 밀고나가는 배양과 담력,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투지와 인내성, 최첨단들과의 앞장에서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여 생산생활화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는 높은 실력, 이것으로 하여 그 품은 리상은 언제나 실천으로, 눈부신 현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 그가 당앞에 맹세다진대로 광산로동계급과 함께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능력이 큰 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할수 있었던것도, 생산공정의 CNC화를 훌륭히 실현할수 있었던것 오직 당의 의도물 끝없는, 자신의 리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돌진 또 돌진한데 있다.

우리에게는 이런 리상이 높은 일꾼, 당의 뜻을 끝까지 견디는 설사 할방이 무너진대도 물러서지 않고 끝장을 보고야마는 완강한 기질을 가진 실천가들이 필요하다.

북변의 두메에 살라도 누구보다 멀리 앞을 내다보며 끝끝내 인민의 무릉도원, 인민의 리상촌을 일떠세운 3월5일청년광산의 일꾼들과 종업원들, 한번 품은 무 굶김 없이 나라에 헌신하기 위한 일을 두류세움 찾아한 927삼공정의 일꾼들이요 최첨단들과의 앞장에 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참다운 인간이 아니거는 아름다운 리상을 지닐수 없다.
대중은 충정의 열도가 높고 실천력이 강할뿐만아니라 뜨거운 인간미를 지닌 일꾼을 존경하고 따르며 그런 일꾼과 함께라면 어떤 기적도 다 창조한다.

이것이 오늘날 3월5일청년광산의 전변을 통해 우리가 심장으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진리이다.
남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밤을 지새우면서도 그 어떤 특건이나 명예를 바라함이 없이 오직 복부의 한길만을 묵묵히 가는 그런 실천한 인민, 일선의 안락과 가정의 행복보다 조국의 부강변영을 먼저 생각하며 한생을 밀부러처럼 바쳐가는 그런 광산의 인간이 되라.

은 나라를 강성대국리상향으로 꽃피워가시는 백두의 선군령을 김정일장군님의 공적속도, 강행군발걸음은 나날이 빨라지고있다.

조국은 승고한 리상실현의 지름길에 확고히 들어섰으며 오늘 우리 앞길에는 더 눈부신 승리, 더 위화찬 변영, 더 위대한 행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천만근민이여,
모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두에서 열어가시는 승리의 진군로를 따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달려나가자.

광명한 미래는 우리의것이다!
주 장 선, 박 옥 경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레소토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마 세 루 레 소 토 왕 국 국 왕 레 지 에 3 세 폐 하 나는 레소토국 44대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변영과 복리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영

주제99 (2010)년 10월 1일 평 양

회고록 학습을 실속있게

고북부 방성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꾼들이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서 회고록에 대한 해설선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나가고도 하고있다.
얼마전 들뜬 농장별로 나

간 한 일꾼은 작업의 일함을 리용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제3권에 수록되어있는 《천교령의 눈보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 하였다.
모진 시련을 강의한 의지와 열렬한 조국애로 이겨내시고 결단코 조선혁명을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기념 연구토론회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기념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0돐기념 연구토론회가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자주통일의 획기적인 국면을 열어놓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 북과 남의 현실조건과 경제발전의 요구를 깊이 종합하시고 주체 60(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시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은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령방 국가를 형성하는것이요 인종합이다.》

토론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장수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위생을 빛나게 해체해 온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강조하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고려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독창적인 방안

우리 수령님 축복하신다

파도치라
기쁨이여 환희여
굽이치며 설레이라
행복의 물결이여 영광의 대하여

은 나라에 차넘치는 격정에 받들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이여
더 높이 열리라
쏟아져내리는 햇빛이여
이 나라 이 땅을 더 밝게 비치라

아,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를 변함없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창창한 미래를 내다보는 끝없는 감격
이 가슴을 끝없이 울렁이게 하여라

진정할길 없어
울렁이는 이 가슴 진정할길 없어
내 만수대덕에 오르니
우리 수령님 환한 미소가
하늘땅 가득 차넘쳐
누리는 더욱더 찬란히 빛나누나

붉은 대표증을 어찌
대표들만이 높이 들었으랴
백두의 설한봉과 전화의 불길속을
헤쳐온
항일의 로동사들과 전쟁로병들이 높이
들었다

조국의 한치땅을 목숨으로 지켜선
천리방선의 병사들이 높이 들었다
강성대국건설에 산악같이 일떠선
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직신인들과 청년학생들
이 나라 찬만근민이 높이 들었다
이 땅의 선군세월이 높이 들었다

위대한 그이를 모시고 살아온 그
나날에
우리는 심장으로 걸잡았었어라
장군님 걸으신 길이 바로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이고
장군님은 곧 조선로동당임을

김만영

위대한 그이께서
우리 당 수위에 높이 계심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공기가 있다는것
우리 집 창가에 햇빛이 따스히 비쳐
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끝없이 울려 퍼진
다는것
강산에 행복이 파도쳐 설레인다는것

축하를 받으시라
찬란히 빛나는 로동당시대에
혁명의 전황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여

영광을 받으시라
찬란한 미래의 하늘가에
우리의 붉은 당기를 휘날리시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여

21세기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시어
심장으로 추켜들었던 붉은 대표증

우리는 언제나 가슴속에 간직하고
천년을 만년을 삼켜 투쟁하리라

향도의 손길이 편친
신군의 푸른 하늘아래
내 나라 내 조국은
은 세계가 부러워하게
눈부신 위용으로 일어설리라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환희가 파도치는 내 나라 강산에
수령님의 다정한 웃음이 울려
퍼진다
—로동당시대는 오늘도 좋지만
매일은 더욱더 번영할것입니다

아, 만수대덕에 태양이 빛난다
조국의 번영이 천추만대에 이어진
것이 기쁘시여
우리 수령님 환히 웃으시며
우리 당의 창창한 미래를 축복하신다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향도
의 당
영원한 영원한 로동당시대를 축복
하신다

어릴적목소리 아닌
조선로동당의 목소리가
—나에게 당이 있다!

내 가슴에 산악처럼 자리잡은
크나큰 긍지
당이어 그대 안겨준 붉은 당원증을
지녀
폭풍에도 그 나래 꺾일줄 모르는
수리개마당
천만시원 웃으며 헤쳐넘지 않았
던가
매일을 향해 신심놀이 달려가던것
아니던가

진호가에 해가 솟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또다시 총비서로 높이 모신
병사의 가슴속에 차오르는 남다른
긍지여

낮이나 밤이나
비오나 눈오나
우리를 찾아 전진천리
힘한 령 힘한 산발 다 넘으신
장군님
그이는 우리 당의 총비서
그이가 백전백승의 우리 당

영광의 이 아침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처럼
자이로운 그의 영상을 우리러
본다
장군님을 위하여 한복숨바처 싸울
맹세안고
나의 총애여! 더 억세여지라

나는 총대를 잡은 당원
언제에 가슴에다 밤을 새우던 전호
가에
한치한치 뿔아오른 칼벼랑우에

마치와 낮과 북이 새겨진
붉은 기록의 자락을 당원증으로
간직한
그대의 아들딸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숨없이 붉은 대표증을 드는 이 순간

어찌 대회장만이라
주체의 붉은 쇠물이 끓는 용해장
에서
주체의 비날론이 쏟아지는 공도의
하늘아래서
주체의 비로로 오곡을 익히는

나는 심장으로 새겼다
입당청원서의 구절구절을

나를 보증하여
총대당원들이 엄숙히 손을 들었
을 때
그 얼굴은 늘쌍 보아오던 그런 모
습이 아니었다
당원들의 그 모습은
조선로동당의 충직한 당원들
김영조, 김광철영웅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런 당원들의 보증을 받은 당원
가장 성스럽고 존엄높은 그 부름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영예를
손을 잡고 전호에서 지냈다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고
걸음걸음 손잡아 당원으로 키워준
고마운 어머니당이어
그대를 받든 총대는 당의 총대!
당의 위업에 충직한 우리는 당의
군대!

장군님을 변함없이 총비서로

풍요한 대지에서
메아리쳐 울려오는 소리
—우리에게 당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이 계신다!

아, 위대한 우리 당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러 뜨거운 환희의 가
슴들
공지와 자부로 뉘러는 이 심장
은 누리를 향해 웨치여라
—우리에게 당이 있다!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이
계신다!

높이 모신
위대한 당이어 나를 부르시라
김영조영웅의 25초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수령님사수위의 권위투사로 살
리라
김광철영웅의 영생의 모습 심장에
새기고
당중앙과 생사수명을 같이하리라

당을 받든 제일선 애국의 전호
가에
수백만 총대당원들이 있는 한
우리 당 선군위업의 력사는 도도히
흐르리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우리의 당중앙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리라

아, 환희의 이 아침
우리 당 총비서이신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총대들어 웨치는 만세의 합성은
천리방선에 메아리친다
결사수위의 총대술은 끝없이 설배
인다

삼가 수령님을 우리러니
태양의 그 미소속에 어둠과
우리 당력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대표자회 추석단으로 나오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어버이수령님 넋을 활짝 꽃피우시고
우리 당의 위업을 찬란히 빛내이시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마련하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전환의 문을 여시고
추석단으로 나오시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마다에선
수령님의 발자욱소리 숨없이 울려라

시대를 이끌고
력사를 이끌고
장군님 거룩히 옮기시는
발자욱마다에서 빛발친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수령님과 함께 혁명의 대소사를
의는하고
오직 수령님 뜻대로
민족번영의 무궁한 세월을 안아
오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불변의 의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
시려는
철석의 신념

지심을 뾰고
마침내 용암이 솟구쳤는가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일제히 높이 드는 붉은 대표증
터치는 만세소리 만세소리!

그 순간
내 어릴적

추

그토록 기다려온 날
그토록 소망된 행복
하늘에 땅에 넘치도록
심장으로 터치는 환희여 영광이여

세월의 환골까지 받들고싶어
인민이 한담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동지!
우리 불수록 북받치는 크나큰
기쁨은
자랑높은 추억으로 더욱 빛나

우리 당 총비서로 그이 계시어
조국은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졌는가
민족희망의 국력이 억년애 뻗친 땅
세월의 눈비도 모진 광풍도
우리의 강대국 행군로는 가로
막지 못했거니

해와 달을 들끓이며
강행군의 신들레를 더욱 조이신
그이 헌신의 자욱따라
두메라 벌방이랴 그림처럼 일떠서는

김남호

—우리는 어제보다 더 높이 더
추격하게
김정일동지를 받들리라!

진정
어버이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은
절대불변의 신의!
역격같은 신념과 의지!

들으라 강성대국 산물림마당
강산을 떨치는 이 환호성을
인민의 내 나라를 더욱 빛내줄
우리의 푸른 하늘 더 푸르게 펼
쳐줄
인민의 숙된 한몸에 지니신 그이
우리러
김일성조선이 터치는 무상의 감격
이다
수령님을 타고난 민족의 끝없는
영광이다

더욱 푸르러지는 산발이 찬한다
더욱 기쁘게가는 들이 노래한다
더욱 환해지는 인민의 모습이
웨친다

대

김남호

—우리는 어제보다 더 높이 더
추격하게
김정일동지를 받들리라!

진정
어버이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박은
절대불변의 신의!
역격같은 신념과 의지!

들으라 강성대국 산물림마당
강산을 떨치는 이 환호성을
인민의 내 나라를 더욱 빛내줄
우리의 푸른 하늘 더 푸르게 펼
쳐줄
인민의 숙된 한몸에 지니신 그이
우리러
김일성조선이 터치는 무상의 감격
이다
수령님을 타고난 민족의 끝없는
영광이다

기쁜

해살피는 아침
명절처럼 설배는 마음 서두르며
나는 출근길에 나선다
청신한 물결이 굽이쳐가듯
활기차게 흘러가는 사람들의 물결...

떠오르는 해는 밝기도 해라
우리의 하늘은 푸르기도 푸르러라
마음속에 모셔온 어버이장군님을
변함없이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여
새 기쁨 새 희망에 들먹이는 이
아침

철철 드리운 시련의 그 나날
허리머를 그 몇번 조이면서도
마음속에 그이가 계셨기에
동러오는 새 아침을 그려보던 우리
인민
변이 나는 기적을 이 땅우에
마음속엔 울리고있었다

아침

아, 이 아침도
환희로운 우리의 마음속에
어버이처럼 어머니처럼 가까우신분
기쁨과 슬픔의 언덕을 함께 넘으며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해오신분

비내리면 비를 맞으며
나진다면 눈을 맞으며
자신은 협산준령 다 헤쳐가시면
서도
인민은 따뜻한 아메목에 앉혀
주신분

자나깨나 그이를 더 잘 모시려는
진정
언제나 가슴에 소원으로 가득 남아

노래

뒤설배네
오늘은 바다같은 인민의 마음우에
또다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돋았으니

페사롭지 않아라
오호지처럼
우리의 모든것이 페사롭지 않듯
인민의 태양이 빛나는 이 땅엔
하늘도 공기도 아침의 출근길도

열망에 뛰는 가슴 한껏 부풀리며
새날의 푸른 삶을 더 크게 호흡
하며
이 아침 나는 간다
찬란한 미래를 열어온 당대표자회
어버이장군님을 높이 모신 기쁨
안고
성큼 다가오는 강성대국 그날로
수천수만이 함께 간다!

우리에겐 당이 있다!

한없는 숨쉬함이 흐르는
당대표자회 추석단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붉은 대표증을 드는 순간

나와 가슴을 터치며
웨치고싶은 한마디
—나에게 당이 있다!
우리에게 장군님이 계신다!

내 어릴적

리연희

내 안길 크나큰 품

어이 잊을수 있으랴
민물같이 나를 바라보던
새로당원들앞에
진정할길 없던 내 가슴의 벽차오름
이어
어머님의 손길인듯
붉은 기록이 이 몸을 감싸안아줄 때
마음속엔 울리고있었다

우리에겐 당이 있다!

한없는 숨쉬함이 흐르는
당대표자회 추석단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붉은 대표증을 드는 순간

나와 가슴을 터치며
웨치고싶은 한마디
—나에게 당이 있다!
우리에게 장군님이 계신다!

내 어릴적

우리에겐 당이 있다!

한없는 숨쉬함이 흐르는
당대표자회 추석단
우리의 김정일동지를 우리러
붉은 대표증을 드는 순간

나와 가슴을 터치며
웨치고싶은 한마디
—나에게 당이 있다!
우리에게 장군님이 계신다!

내 어릴적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돛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돛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4일 진승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 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모란봉구역 직맹위원장 김경철, 평양양화력발전소 조급직맹위원장 박명호, 김경숙평양제사공장 로동자 한화리가 연설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되신 대경사를 맞이한 은 나라 전체 인민이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당창건 65돛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력사는 백두의 전설적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따라 자주시대 혁명당 건설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조선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

어는 영광스러운 력사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34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정치적 향도자, 운명의 진정한 보호자를 가지고 자주적운명개척과 부강조국건설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한 력사적사변이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당건설로선과 원칙을 발판하게 견지하시어 우리 당을 자주적대가 강한 로동하고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인민 대중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어머니당으로 꾸려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업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시어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투쟁하는 불패의 당으로, 선군정치를 혁명평등방식으로 틀어쥐고 조국번영의 일대 전진기를 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향도적 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발전의 매시기가마다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며 직업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옹호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

이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의 강화발전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신념을 지니고 당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고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직맹조직들이 화신직조직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려 모두가 선군조선로동자들의 혁명적기상과 본래를 보여주도록 하여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로 온갖 모퉁 대고조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아에 특기할 대번혁의 해로 내이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65돛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의 웅변모임이 4일 만경대혁명사적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우리 혁명의 로동하고 세련된 참모부로, 선군혁명의 자주적인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적업을 길이 빛내이여 당의 평도자라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 맹세를 토로하였다.

웅변 《어머니 우리 당》에 출연한 함경남도농근맹위원장 파장 김영찬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지도의 강령군 길을 뚫어놓았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인민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강령군 삼봉리 농근맹혜사장 리미련은 웅변 《총애와 벼이삭》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총애가 있어 내 나라의 하늘이 푸르고 조국땅우에 풍요한 가을이 펼쳐질수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패성을 격조높이 찬양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구상과 결심은 시대의 기념비를 일떠세우는 창조적 원천이요 장군님의 명령이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울 열의에 찬만되어있는 우리

우리 장군님 강령군길에》를 들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해 농장마을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선진으로 더 잘 꾸러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웅변모임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무한한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살려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농업근로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모임에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 평양시대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신촌군 증명협동농장 농장원 리철숙의 웅변 《심장의 박동은 만추자》를 들으며 자기의 본분을 다해 농장마을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선진으로 더 잘 꾸러나갈 결심을 굳게 다지였다.

웅변모임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무한한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살려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농업근로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모임에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일군들, 평양시대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 평양방직공장과 여러곳 참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이 수도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참가자들은 4일 평양방직공장을 찾았다.

우리 인민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배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공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로고를 가슴뜨겁게 걸잡았으며 련일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하며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이국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날 평양시 교외에 있는 타 조목장을 참관한 참가자들은 목장을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훌륭히 건설시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본받아 당의 평도자라 인민의 찬만까지 리상이 꽃피어나는 희한한 현실을 펼쳐놓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 결의를 가다듬었다.

3일 참가자들은 사리원시의 여러곳을 참관하였다.

미곡협동농장을 찾은 그들은 미곡혁명사적관에서 농장에 깃들여있는 절세위인들의 사상의 력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들은 벼마다 설배는 풍요한 협동농과 산기슭마다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살구동네를 비롯한 문화주택마을들, 축산기지와 기계화작업반 등을 돌아보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선군11경의 하나로 전변된 농장의 모습에서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그려보았다. 그들은 훌륭히 개건된 사리원경기장과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정조물로 일떠선 황해북

도인민협동농, 정방산종합식료 공장에도 들렀다.

전체 참가자들은 참관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번영을 안아오는 우리 당의 혁명한 평도가 있어 어버이수령님의 넋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반드시 빛나게 실현될것이라는것을 확인하였다.

가슴깊이 간직할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맡은 초소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록영화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렵니다》가 상영되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대표자회 참가자들 평양방직공장 참관

영화상영순간 개막

조선로동당 창건 65돛경축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었다.

각지 영화관들과 문화회관들에서 진행될 이번 영화상영순간에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제적인 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 《한평생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평도의 빛나는 력사》를 비롯한 기록영화들이 상영된다.

또한 《있을수 없는 나날에》, 《군대행진비서》, 《빛나는 아침》, 《모듬》, 《금진장》, 《기다려지는 사람》 등의 예술영화

들을 상영하게 된다.

개막식이 4일 인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화예술부문 창작자, 예술인들, 평양시대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홍광순 국가영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주체의 혁명적당건설 위업을 개척하고 이끄시어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의 만민트래드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비범한 사상

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적으로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평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부강조국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안이오조 김일성민족의 리상을 현실로 펼쳐가고있는 격조적인 화복을 담은 영화들을 통하여 관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평도자라 나아가는 길에 승리와 행복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

가슴깊이 간직할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군조선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며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맡은 초소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움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기록영화 《이 세상 끝까지 따르렵니다》가 상영되었다.

이날 각 도들에서도 영화상영순간이 개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